

원희룡 장관, ‘철도 복구상황 긴급점검 회의’ 주재 “안전이 최우선 강조, 철저한 사전점검 지시”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7일 오전 11시, 한국철도공사 관계 운영 상황실(대전)에서, 신탄진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복구 후속 조치와 호우 피해 복구 현황 등을 보고받고, 철저한 사전점검과 안내를 지시하였다.

- 원 장관은 코레일의 보고를 받은 뒤 “기상악화에 따른 운행중단, 서행, 긴급복구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큰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다”라고 격려하면서,
 - 아울러, “이례적 호우 상황이 계속되어 산사태, 노반유실 등의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해 줄 것”과
 - “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므로, 호우가 계속되는 동안 충분히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또한, 원 장관은 “안전이 최우선”임을 강조하면서, “현장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긴급복구와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”하다고 하면서,
 - “불가피한 열차 운행 중단, 서행에 따른 지연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운행상황 안내에 신경 쓸 것”을 주문했다.

2023. 7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